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 26일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에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

미래형 산업단지 첫걸음...디지털·친환경 기술 융합
군산국가산단 이어 전주제1산단 두 번째로 지정
산단공·전북자치도·전주시·지역기관 협업 체계 본격 가동
오는 '29년까지 6개 핵심사업 총 888억원 투입

전북자치도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기술로 개편하는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다.
전북에서는 군산국가산단에 이어 전주제1산단이 두 번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되며, 전주산단 혁신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

다.
이날 출범식 자리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를 비전으로, 2025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 원(국비 6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 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 원) 등 총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산단공,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전담한다.
사업단은 향후 지자체, 기업,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북자치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1심 뒤집어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협박 발인' 등 모두 무죄
검찰 상고 시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

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또 1심에 유죄로 인정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황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인에 대해선 압박이 있었다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

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 기자

완주에 파크골프장 조성해 완주·전주 상생 도모

전주시·완주군, 지난 '23년부터 파크골프장 조성 협약
주민생활 편의·최근 증가한 파크골프 수요 충족 위해
고산·구이·이서 3개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순차적 추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최근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파크골프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한 주민들의 파크골프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지확보가 어려운 전주지역 대신 접근이 편리한 완주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해 양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주민들의 생활체육 편의증진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5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과 체결한 6·10차 상생협약에 따

라 완주군 고산면과 구이면, 이서면 등 3개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고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차분 공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18홀 규모의 새로운 파크골프장(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산 파크골프장에는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탄소저장소 △조경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또한 양 시군은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구이 파크골프장(18홀)과 이서혁신도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누구나 만경강 등 천변을 거닐면서 여유롭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협력사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힘써 주민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법무부

복잡하고 어려웠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와 함께 범죄피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을 되찾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요!

초기컨설팅, 신변보호, 생계지원, 법률지원, 일자리지원, 심리지원

137 대 방 3번 출구 인근 서울여성플라자 3층

문의 1577-1701

중진공 전북본부, “전북 경제 도약 역량 집중”

4대 핵심과제 제시…현장밀착 소통강화·정책자금 조기집행·청년창업가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25년도 4대 핵심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찾아가는 중진공’ 활성화 ▲정책자금 상반기 조기집행 ▲청년창업가 집중육성 ▲수소산업 성장촉진 등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중진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초부터 13회에 걸친 정책설명회와 1:1 상담,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특히 지난 2월 전북사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중진공’에는 전북 소멸위기 지역(영광·김제시, 고창·부안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을 비롯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함께 참여한 기관합동 설명회부터 1:1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1월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는 중소·중견기업 네트워크인 (회원사:전국 1,000여 개사) 글로벌CEO클럽 전북지회 회원사 20개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공동물류, 외국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중진공 주요정책 안내, 기업에로 청취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민생경제 활력제고와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향에 발맞춰, 중진공에서는 정책자금 상반기 조기집행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 배정된 정책자금 예산 1,668억 원 중, 1분기에만 46%에 해당하는 770억 원을 집행했고, 상반기까지 80%를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기업의 시설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

고 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를 통한 청년창업 기회 제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산업·경제 혁신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북청창사는 '18년 개소 이래 341명(8기~14기)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총 누적매출 798억 원, 고용창출 931명, 투자유치 39.4억 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15기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40명의 입교생을 선발했으며, 지난 24일 입교생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화지원, 정책연계, 멘토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전북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10월 ‘완주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출범했다. 중진공을 비롯한 완주군

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한국수소연합, 전북TP, 완주수소연구원 등 총 6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 클러스터는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수소특화 국가산단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지난 2월 체결된 대주코레스(주)와의 ‘동반성장 네트워크’ 협약이다.

이를 통해 수소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대주코레스(주)의 수주기업에 올해 100억원 규모의 단기/저리 생산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서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동시에 전북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을 찾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안호영 의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검찰 부당함 보여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의원은 26일 내려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은 결국 법의 이름 앞에 무너졌다”면서 “정의는 살아 있었고 법은 끝내 진실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

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권의 폭주에 맞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에 골몰했던 윤석열 정권은 그 부당함을 역사 앞에 낱알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 개소

핀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 7개사 최종 선정…전북금융산업 시장 발전 기대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는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전북 1기)’ 개소식이 펼쳐졌다.

전북자치도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전북 1기)’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서 도내 디지털 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2025년 ‘디노랩’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금융그룹,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으로 추진된다.

‘디노랩(DINNOlab)’은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6월 우리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노랩 전북

유지를 확정했으며, 특히 이번 개소를 계기로 도내 디지털 금융 중심지 구축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디노랩’ 사업 선정 기업은 ▲㈜도모로유 ▲머니가드서비스㈜ 등 총 7개사이며, 이달 초 우리금융그룹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공간 무상 제공, 경영·기술·투자 부문의 1:1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디노랩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실질적 기회도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우리금융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전략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는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 개소식이 펼쳐졌다.

적 파트너십 확대가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 산불 피해 현장 점검 김관영 도지사, 임시 거주시설 운영·전담공무원 배치

전북자치도는 26일 김관영 도지사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장에서 이재민 보호와 복구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산불은 26일 오후 2시 14분경 고창군 성내면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일대로 확산됐다. 도와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작업에 나서 같은 날 저녁 불길은 모두 잡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13동 이 불에 타고, 총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재민들은 초기에 소성 구룡회

관으로 대피한 뒤, 현재는 금동마을 회관에 임시 거주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함께 전담 공무원을 1:1로 배치해 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맞춤형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이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피해 복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김영태 기자

김슬지 도의원 “도지사, 즉흥적 대응과 인기위주 도정 운영 안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6일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위기 모면만을 위한 즉흥적 대응과 인기 위주의 도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집단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 좋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진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의 하나로 ‘레드팀’을 만들

었지만,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내부 감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레드팀 구성원의 공정한 선발과 함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레드팀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기존 관련 업무 조직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자치도가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전북자치

도가 의회의 제안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 민주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4개월만에 8개 면의 시범사업을 준비한 것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진지하게 풀어나가 확대해야 할 농촌 기본 소득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협약 무산과 관련해 “특별자치체와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는 각 기관의 참여한 이해를 조율하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합의해야 만들 수 있다”며, “성과주의와 임기응변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갈등과 혼란을 증폭할 뿐, 진정한 혁신과 발전의 전북 행정이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전북이라는 팀플레이를 강조 했다.

/김영태 기자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1.05 kWh/㎡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 kWh/㎡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30도에서 사용하기: 0.09 kWh/㎡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회 / 국민과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공익 창출

국민이 앞지러야 한국전력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올해 전주시 공동체 사업’ 46개 선정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개최...마을공동체·골목상권공동체·온두레공동체 등 3개 분야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2025년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46개를 선정했다.

전주시는 2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와 온두레공동체, 골목상권공동체 등 3개 분야 총 46개 공동체를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4일 누리집에 ‘2025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를 공개모집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분야 18개, 골목상권공동체 분야 2개, 온두레공동체 분야 42개 등 총 62개 공동체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62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무심사 및 서류, 면접심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활성화 심의를 개최해 최종 공동체를 선정했다.

먼저 마을공동체 분야에는 총 18개 등이 선정돼 각 동의 주요한 마을의제를 발

굴하고, ▲마을경관 개선 ▲환경보호 ▲주민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골목상권공동체 분야의 경우 총 2개 공동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며, 상권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14개 공동체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 청년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공동체 5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또한, 올해는 지역별 공동체사업의 고른 배분을 통해 전주시 전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별 신청 공동체가 1개인 경우 유일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덕진구 9개동 완산구 8개동에서 공동체 지원사업을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와 협력해 선정된 공동체 회원들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회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2025년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46개를 선정했다.

<사진=전주시>

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선정 공동체에 사업비를 교부해 각 사업을 한해 동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공동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사회 성장에 발판이 되는 공동체 사업이 전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선정된 공동체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치있고 의미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앞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최대 2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육아휴직자 대신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해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로,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

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대체인력 근로자로, 기업당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고용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재직자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에게 최대 1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초기 한 달 만에 신청자 수가 46명에 달해 목

표의 50%를 넘는 등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주)휴비스, 착한 소비자 운동 ‘전주 함께장터’ 동참

전주시와 (주)휴비스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승덕 (주)휴비스 전주공장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휴비스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주)휴비스는 기업·시민·소상공인이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노동 취약계층을 응원하는 범시민 참여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주시

에 전달했다.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잔치 ▲혁신 공공기관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등으로 구성돼 올 한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주)휴비스의 기부금은 ‘전주 함께장터’의 기획 취지에 맞춰 전주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이동노동자·폴센터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응원하는 ‘노동자 기(氣)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내수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지역상권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기부와 착한소비에 동참해 주신 (주)휴비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휴비스의 참여가 전주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



<사진=전주시>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산불·고농도 미세먼지 강력 대응” 주문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형산불 예방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산불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산림과 임야, 사찰 등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임야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다.

이는 최근 울산과 경북,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2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산불 피해면적이 약 1만4694ha에 달하고, 피해 지역 주민과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감시탑 23개소를 설치하고 감시인력 137명을 배치했으며, 4055점의 산불진화장비를 갖추는 등 신속한 조동진화 대응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전주시는 ▲임산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홍보물 설치 ▲임산자 실화에 대비한 감시·계도 강화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이

와 함께 우 시장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3월에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겨우내 중단된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등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를 대기환경전광판과 교통전광판 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계절관리제 시행 중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 점검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계절관리제 및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비롯해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로 및 건설공사장 등을 사전 점검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형산불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화기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봄철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19년 전 실종 전북대생 부모, 의혹해소 나서

전주 거처 마련...신속 수사 촉구 시위·인권위 조사 예정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당시 29세)씨의 아버지 이동세(87세)씨와 어머니 송화자(84세)씨가 강원도 철원에서 전주로 거처를 마련하고 실종사건의 의혹해소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26일 이윤희 실종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총 5건의 고소건과 1건의 민사 재판 진행 중인 실종자 이윤희의 부모는 해당 고소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진행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부모는 완산서 앞에서 해

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6일 오후부터 1인 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2006년 6월 6일 수의학과 종강 파티를 마치고 전북대 인근 원룸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채 이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청소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일주일 뒤 누군가 이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여러 차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도서문화재단 씨앗’, 협력 이어가

‘우주로1216’·‘모야’ 등 트윈세대 중심 공간 운영 도모

전주시가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 등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문화재단 씨앗’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와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26일 전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태윤 상임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과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관계는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마련된 ‘우주로1216’과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 콘텐츠 공유와 제안, 재료 및 기기 장비 선택적 지원, 운영자 교육 및 네트워크를 지속 제공기로 했다.

시는 ‘도서문화재단 씨앗’과의 정기

적인 회의는 물론, 공간 이용 데이터 및 운영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지난 2019년 도서관 속 트윈세대 전용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국 최초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우주로1216’을 조성했으며, 이후 공간개선 및 콘텐츠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 2023년 개관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 어린이 작업실인 ‘모야’를 조성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 조성부터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내 어린이 작업실인 ‘모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을 이어온 ‘도서문화재단 씨앗’과의 협력이 이어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전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트윈세대들이 도서관 속 이 공간에서 스스로 세상을 발견하고, 내면을 넓히기 위한 경험의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립극단,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 ‘어둠상자’ 마련

전주시립극단(예술감독 겸 연출가 이수인)은 오는 4월 4일과 5일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32회 정기공연인 ‘어둠상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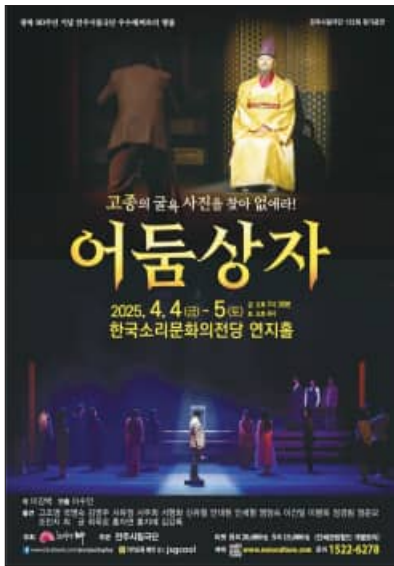
이강백 작가가 쓰고 이수인이 연출을 맡은 이번 ‘어둠상자’ 공연은 고종 황제의 마지막 어진을 찍은 황실 사진가 집안이 4대에 걸쳐 그 사진을 되찾기 위해 펼쳐지는 이야기로, 한국 근대 사회가이자 사진가인 해강(海岡) 김규진이 1905년 경운궁(덕수궁)에서 촬영한 고종황제의 초상 사진을 모티브로 창작됐다.

이번 연극에서 고종은 미국 대통령의 딸인 엘리스에게 자신의 사진을 선물하는데 엘리스는 사진을 보고 고종을 ‘황제다운 존재감은 없고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으로 조롱한다.

이에 분개한 고종은 황실 사진사 김규진에게 그 사진을 되찾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김규진·석연·만우·기태 4대의 걸쳐 사진을 찾으려는 고난에 찬 분투가 무대에서 시작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여정을 실감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공연은 김씨 부자 4대의 활동을 4막으로 구성한 오페라극으로 꾸며져 각각의 막이 독립적이면서 동



시에 서로 연결돼 전개된다는 점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흥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4일(금) 오후 7시 30분, 5일(토) 오후 4시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입장권은 R석=2만 원, S석=1만 5000원으로 나뉘며(www.naruculture.com, 1522-6278)에서 예매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주시립극단이 한국 근현대사를 내용으로 한 우수한 작품을 준비했다”면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 바이오포럼 출범…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장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공동 주관, 제1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도·바이오기관, 지역 산업 현안 논의…혁신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이 함께 주관한 '제1회 전북 바이오포럼(이하 바이오포럼)'이 26일 전북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이오포럼은 바이오분야가 산업간 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미래첨단산업국이 전북자치도만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분야 간 융복합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이오분야 혁신 네트워크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 유관기관 별 현안 공유 ▲바이오산업 애로사항에



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함께 주관한 '제1회 전북 바이오포럼'이 26일 전북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바이오진흥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전북지역 바이오기관 간 지속

가능한 연계와 혁신 기반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학교 오명준 교수를 초청하여 '과학,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명준 교수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 속 기술혁신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조망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포럼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내 바이오혁신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와 55억 규모 금융지원 협약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지원…2억원 특별 출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군산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산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5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더딤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지난 해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특별출연 결정했다"며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유동성 공급 강화 및 지역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과일 꽃 만개시기 기상 변동 재해 예방 주의보

과수 꽃 피는 시기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별 편차 커…저온 피해 우려 지역 대비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올해 과일 나무 꽃이 활짝 피는 '만개(滿開)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전망이다

고 26일 밝혔다. 특히 농진청은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최근 기상 변동이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복숭아 △배 △사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계절 예측 모형을 적용, 분석한 결과다.

복숭아 '유명'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 전주가 4월 8~10일로 가장 빠르고 △경북 청도 4월 12~14일 △경기 이천 4월 17~19일 △강원 춘천은 4월

18~20일로 예측된다.

배 '신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지역이 4월 7~10일로 가장 빠르고 △전남 나주 4월 10~13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은 4월 15~21일로 전망된다.

사과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대구 군위가 4월 18~20일로 가장 빠르고 △전북 장수 4월 20~22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21~23일 △경북 청송은 4월 28~30일로 예상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눈트는 시기와 꽃피는 시기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저온에 꼼꼼하게 대처해야 한다. 꽃이 예정보다 빨리 폈을 때 예상치 못한 저온이 발생

하면 열매 달림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늦서리나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미세살수(물 뿌림) 장치나 방상 팬(서리 방지 팬) 등 재해 예방 설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사과는 꽃떨기 가운데 꽃(중심화)보다는 저온에 비교적 강한 가지 옆쪽 꽃(측화)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린다. 꽃가루 운반 곤충은 인공수분 7~10일 전 과수원에 방사한다. 과수원에 핀 잡초 꽃을 미리 제거하면 곤충이 사과꽃 쪽으로 이동해 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



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과수 재배 농가는 작목별 꽃 피는 시기에 맞춰 기온 변동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과수원 관리에 힘써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토끼고기 항비만·지방간 개선 효과 입증

체중 및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뚜렷한 건강 개선에도 도움…새로운 건강식품으로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토끼고기가 항비만과 지방간 개선 효과를 가진 우수한 건강식품임을 동물실험(쥐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험용 쥐를 △일반(정상) 식이군 △토끼고기 미포함 고지방 식이군 △토끼고기 포함(5~10%) 고지방 식이군으로 나눠 15주 동안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이 토끼고기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체중 증가가 유의미하게 억제된 것이 확인됐다.

실험 초기(0주)에는 모든 실험군의 체중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의 체중 증가가 점진적으로 억제됐다.

특히 토끼고기를 10% 포함한 식이군이 5%를 포함한 식이군보다 체중 증가가 더욱 둔화했다.

연구진은 실험군의 대사 상태를 통일시키기 위해 12시간 절식 상태에서 혈액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끼고기를 섭취한 고지방 식이군은 토끼고기를 섭취하지 않은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38% 감소

했다.

간 내 중성지방 함량도 26%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간 손상 여부를 나타내는 효소 수치도 20% 이상 감소해 간 건강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에 지방 세포 모델 연구를 통해 토끼고기 추출물의 비만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토끼고기는 지방 함량이 낮고 미네랄과 비타민 비(B)12가 풍부하며, 체중 조절과 지방 축적 억제에 효과적인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동의보

감과 민간요법에도 토끼고기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에 좋은 보양식으로 기록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부드레크과 강근호 과장은 "토끼고기의 우수한 건강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토끼고기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축산물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LX 드론, 재난 현장서 '눈'으로 활약…대형 산불 신속 대응에 활용 확대

LX, 전국 동시다발 대형 산불 드론영상처리센터 구축해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전국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 산림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LX는 2021년 행정안전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를 LX공간정보연구원

(완주군)에 구축했다.

이 드론영상처리센터는 재난지역 5㎢ 기준으로 종전 30일 걸리던 입체영상을 1일 내 만들고 토지정보와 연계해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 규모를 정부·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LX 드론 활용 시스템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특별재난지역(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충남 태안군)으로 선포된 지역 등을 비롯해 재난지역에 드론팀을 급파해 피해 지역(16.6㎢)을 촬영하고 피해조사를 지원했다.

과거 집중호우(충북 괴산, 예천 지역)·산불(울진·강원도 영월 지역과 강원도 인제)·지진(경주 지진) 등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해왔다.

/김영태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정읍 소성면 산불 재난구호활동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25일 15시경 고창군 아산에서 시작하여 정읍시 소성면 민가로 확산된 산불로 인한 이재민에 대해 재난구호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로 번졌고, 대피령에 따라 소성초등학교와 소성교회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이불 35채와 비상식량세트 40개를 지원했으며 적십자봉사를 비상소집하여 구호물품 전달, 배식 활동 등을 펼쳤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경숙 적십자봉사회 정읍시협의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 한결같은 달려왔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추가적인 상황전개에 따라 재난구호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고등학생 수학 학력 신장 온힘

수학 마스터즈클럽·학력신장 캠프 운영·문항 제작 역량 강화 연수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마스터즈클럽’ 운영 등 수학 학력 신장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학 학력 신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수학 교사들이 학생들을 4~5명의 작은 집단으로 구성해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계 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8월에는 집중 학력신장 캠프를 열어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학습 성과를 점검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마스터즈클럽 운영과 함께 ▲문항 제작 역량 강화 연수 ▲교사 문항 개발 지원단 운영 등 교사들의 수학 평가 문항 제작 및 출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학 마스터즈클럽 운영과 문항 제작 역량 강화 연수 등 수학 학력 신장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내 수학교육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노조 단체교섭 성실추진”

전교조 전북지부 천막농성 돌입 283일만에 단체교섭 재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사노동조합 및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단체교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실무교섭이 진행되다 노조 측에서 집행부 교체 등의 사유로 교섭연기를 요청하면서 잠시 중단됐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일정을 확정하면서 27일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한다. 전교조 전

북지부가 지난해 168개 조항 만료 통보 등의 이유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83일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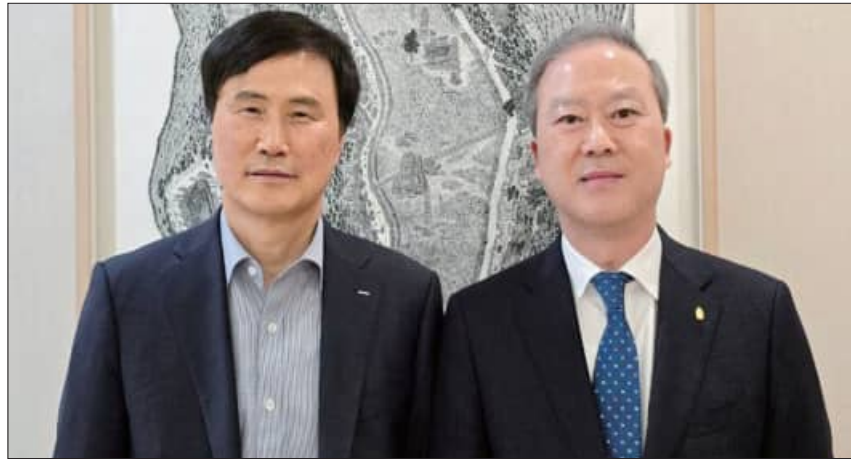
전북대, 포스코와 미래 인재 양성 산학협력 모델 구축

양오봉 총장이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만나… 학생 취업 역량 강화 협력·미래사업 기획 연구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만나 산학협력모델 구축과 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한 전북대 동문으로서, 후배들의 성장과 모교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양 총장과 이 대표는 우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협력기로



전북대학교가 포스코와 미래 인재 양성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뜻을 같이 했다. 전북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신규사업 기획에도 협력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 사업 및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 및 취업,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신규 영양교사 업무 지원 나선다

멘토-멘티 멘토링제 직무연수·찾아가는 학교급식 컨설팅 등 다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과 영양·식생활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경력 영양교사를 위한 학교급식 업무 설명서’ 2차 개정판을 제작·배부했다.

학교급식 업무 설명서에는 ▲시기별 추진업무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학교급식 운영관리 ▲학교 누리집 관리 ▲나이스 식단작성 및 품의 ▲공문서 작성법 및 K-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신규 영양교사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세히 담겼다.

실무 중심 직무연수도 지원한다. 영양교사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운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급식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차례에 걸쳐 실



무 중심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지난 7일에는 식단 작성 및 식재료 품의 등 급식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나이스 직무연수 운영했고, 오는 28일에는 학교급식 위생 관리 연수를 통해 선배 영양교사들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분임별 지도에 나선다.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도

를 운영한다.

다음 달 8일 왕의지밀에서 ‘학교급식 컨설팅단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열고 선배 영양교사들이 신규 영양교사를 적극 지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배 영양교사들은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1:1멘토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2024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 ‘S등급’ 달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창업보육센터가 2024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들이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BI 지원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24년 평가 대상 기관 중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창업 지원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평가는 ▲임주기업 인프라 지원 활동 ▲매출/고용 창출 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 인력 확



충 ▲투자유치 성과 ▲정부 및 지자체 연계 지원 실적 ▲내·외부 네트워크 교류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상우 센터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과 임주기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북 창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SGC에너지

진안고원

농업기술센터

www.sgcenergy.co.kr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룩하겠습니다.

SGC 에너지건설

SGC 에너지

SGC 그린파워

SGC 신재생에너지

SGC 파이프라인



익산시, 축제박람회서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

익산시가 대표 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며 관광도시의 역량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23년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과 2024년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2024년 마스코트 부문 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관광도시의 위상을 이어갔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익산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구성하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 냈다.

다채로운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의 열띤 반응은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고,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이라는 성과로 연결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나경균 새만금공 사장 군산대 명사 초청 특강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난 25일 군산대학교에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하며, 새만금사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군산대 고충곤홀에서 박규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새만금사업과 공사의 역할을 소개한 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즉문즉답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새만금 사업의 기회와 전망, 공사의 역할, 그리고 질의응답한 내용 이외에 학생들에게 들려주고싶은 인생에서의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은 국가적 미래 성장 거점으로, 군산대 학생들의 관심과 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사도 대학과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군산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상반기 착한가격 업소 정비·신규 모집

군산시가 오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신규 모집 업소는 외식업, 아·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정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산시 공식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73)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소성면 일대 산불 진화 완료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산불 발생 소성면 화룡리까지 확산… 인명 피해 없어

정읍시가 소성면 일대 산불 진화를 마친 후에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2시 44분께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에서 발생해 소성면 화룡리까지 번졌으며, 약 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민가 13동, 창고 6동, 비닐하우스 9동 등 총 28동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직후 시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초기 대피 장소는 소성초등학교였지만, 오후 6시 13분에 소성교회로 변경돼 총 36명이 안전하게 대피했다.

진화 작업에는 공무원과 전문진화대,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 등 총 446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125대가 동원됐다. 화재는 발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성면 화룡리까지 번졌다 <사진=정읍시>

생 당일 오후 11시 3분쯤 완전히 진화됐고, 이후 잔불 확인과 잔여 위험 요소 점검이 이어졌다. 소방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은 같은 날 오후 5시 24분에 해체됐다.

시는 26일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산림보호예방단은 금동마을 화관을 중심으로 차량 순찰을 실시했고 오전 8시 30분에는 재난안전대책본

부 회의를 열어 각 부서의 후속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오전 9시에는 도 임차헬기를 활용해 추가 물 투하를 진행했으며, 정읍소방서와 고창소방서가 협력해 피해 재조사에도 착수했다.

시는 이번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는 물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스마트 방역'...모기 발생 대응력 강화

모기발생감시장치 설치·모기민원신고센터 운영

익산시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안심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모기발생감시장치'를 활용한 과학적 방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근거중심 매개방제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과학적 방역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민원발생 지역이나 방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제를 진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모기발생감시장치 설치…데이터 분석해 방역

말라리아 매개모기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지원 사업(근거중심 매개방제)은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치를 설치해 개체수를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개체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효율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8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투입해 일일 모기 감시장비 9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후보지 중 사전 채집 조사 결과 모기 개체 수가 높게 나타난 ▲종합운동장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소리문화예술회관 ▲익산시보건소 ▲모현공원 ▲푸른솔커뮤니티 ▲서동시장과, 시민 이용도와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까지 포함한 9곳이 최종 선정됐다.

일일모기감시장비는 5~10일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작동한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모기를 유인·채집한 뒤 개체 수를 자동 분석·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전산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는 실시간 모기 밀집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 시민 참여형 '모기민원신고센터' 운영

시는 올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온라인 모기민원신고센터'를 신규 운



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유선전화·국민신문고 중심 민원접수 방식에서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모기 민원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접수된 정보는 보건소 방역기동대에 전달돼 즉각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누적된 민원 데이터를 통해 모기 발생 지역 분석, 취약 지점 파악, 방제 효과 평가 등 과학적인 방역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28일~4월 1일 최대 2만원 환급…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총 109개 점포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수산물종합센터 100개, 해신상가 9개로 총 109개 점포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

하는 고객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2만 원 한도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산물종합센터 본

관동 3층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수산인의 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진행

환급 대상 국내산 수산물…젓갈 등 가공식품 중 원재료 국내산 70% 이상 제품 포함

정읍 생고을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소비자는 생고을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인회 1층 고객쉼터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매 당사자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총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 등 가공식품 중 원재료가 국내산 70% 이상인 제품도 포함된다.

단, 모바일 제로페이 결제, 정부 비촉수산물, 음식점 내 소비,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 결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기관 선정

현장 중심 행정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 앞장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임준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 적극행정 이행 노력이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군산시는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 ▲어촌 소멸 위기 극복, 핫플맺길 프로젝트 (어청도 낭만여행)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전통시장 배송 앱 서비스 '시장을 밖으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작년에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체계화하여 10건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간부회의를 거쳐 총 4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시민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대표 사례로는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공공부지 내 사도(私道) 개설' 사업이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개관 100일 행사 풍성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오는 4월 1일 개관 100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익산시는 4월 1~13일 익산시민역사기록관(평동로1길 28-4)에서 ▲기록마블 기록관 스탬프투어 ▲방문객 이벤트 ▲축하엽서 이벤트 등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기록관 스탬프투어는 기록관 주변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기간 라면 전시체험관 '보글하우스'와 ▲근대역사관 ▲청년시청 '홀로스테이션'을 방문해 도장을 찍고 인증

한 선착순 100명에게 마블이 열쇠고리를 증정한다.

방문객 이벤트는 개관일(12월 23일)을 상징하는 23 등 익산과 관련된 숫자 10개를 선정해 해당 순번 방문객에게 기록관 기념품을 증정한다. 축하엽서 이벤트는 기록관 개관 100일 축하엽서를 작성한 방문객에게 특별 기념엽서를 제공한다.

100일 행사를 비롯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063-859-4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군산시 통합방위회의'(의장 군산시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비상사태와 대형재난 발생 시 민·관·군·경이 협력 대응하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장 등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안보 동영상 시청 ▲2024년 통합방위 주요 성과 및 2025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2025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 방향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화랑훈련과 총무훈련을 비롯한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해 군산시의 비상 대비 역량이 더욱 강화됐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관계 기관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방문·쿠폰 지원

정읍시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과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정서지원, 간단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

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용료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내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후쿠폰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순창군, 장제비 지원사업 내달 시행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후 즉시 카드 수령 가능
관내 장례식장 이용 시 일부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이며,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60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60세 미만의 사망자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터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장례식장과 관련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군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즉시 카드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청 건강

장수과에 신청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 열려

의원 47명 임명장·배지 수여...정책발굴·의정활동 펼친다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2025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열었다.

26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학부모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어린이·청소년의원 47명에게 임명장 수여와 의원 배지가 배부됐다.

2025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4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권역별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담당할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 의화학교 운영을 통해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5월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학교를 운영해 의정활동의 기본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두 달여간의 준비과정을 마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완주군은 권역별(삼례,봉동,이서,고산)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삼례권역은 ▲완주홍보대사 완주도시 알리미 청소년홍보단 이서권역은 ▲기후위기대응 에코민국! 클린완주!, 봉동권역은 ▲지역문제해결 정책발굴활동, 고산권역은 ▲디지털과 완주의 만남 ▲미디어 자치기구 안·잘·알을 통해 지역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원들과의 화합과 권역별 소통을 위해 민주시민캠프를 추진하고, 완주군의회 군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황 등에 대한 경험담과 지혜를 경청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순창군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입 희망기업의 입문을 돕고,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를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으로, 주요 지원분야는 경영, 마케팅, 법무, 회계·세무 등이며 콘텐츠 제작, 판매와 판로개척 등 경

영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37)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부 방전에 따른 직접지원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에 나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설립 기념식수 식재

26일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기념해 '기념식수 및 청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캠퍼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친환경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전 북대학교 총장, 남원시의회, 남원시 직원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퍼스 내 소나무, 홍가시, 화살나무 등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기념식수로 소나무를 식재했으며 "소나무처럼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또한 전북과 남원을 미래로 세

계로 이끌며, 행복한 글로벌 캠퍼스를 열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식수로 선정하게 됐다"고 남원시는 밝혔다.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 나무심기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으며, 남원시 관계자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허브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상관·소양 1,210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완주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약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 1,210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완주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

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고원공간정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벚꽃과 봄 노래 어우러진 ‘요천 음악회’ 개최

승월교 둔치서...시민 참여 노래자랑·EDM·막걸리 축제 등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 (시장 최경식)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요천 승월교 둔치에서 '2025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를 개최한다. 제95회 춘향제의 사전 홍보 및 요천 벚꽃 관광지의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시민 및 관광객의 노래로 활기찬 봄을 시작한다.

2025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음악회는 개막식, 축하공연, EDM DJ파티, 시민 및 관광객참여 노래자랑, 그리고 막걸리 축제 등 흥을 돋우는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돼 있으며 로이킵, 김나영, 경서예지, 권재숙 등 초대가수들의 봄과 어울리는 노래로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에서 제조되는 전통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막걸리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색적인 경험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요천 승월교 둔치에서 '2025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관계자는 "2025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음악회를 통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일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봄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마을 방법 CCTV 대대적 보강...224대 교체

통합관제센터용 CCTV 86개소 신규 설치·교체...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2개소 2대

완주군이 올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방법용 CCTV를 대대적으로 보강한다.

26일 완주군은 통합관제센터용 CCTV를 86개소에 총 224대를 신규·교체 설치한다고 밝혔다.

군 통합관제팀은 군 주민참여예산,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지역현안사업비로 선정된 52개 마을에 방법용 CCTV 129대를 신규·교체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보유한 25개 마

에 방법용 CCTV 7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용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2개소에 2대를 교체 설치하고, 완주경찰서와 협의해 선정된 범죄취약지역 7개소에 방법용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한다.

지난해 군은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으로 42개소에 총

144대를 신규·교체 설치했다.

또한, 지역의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478개 마을에 CCTV를 신규·교체를 설치해 왔으며, 1,900여 대의 마을방법 CCTV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법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위탁하고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이 2024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6대 사업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

다.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이번 평가에서 운영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고 특히 2018년, 2021년, 2024년도 연속 3회 A등급을 획득해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남원시로부터 위탁받아 2012년 10월에 개관해 올해로 13번째 남원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종사자가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장진석 관장 신부는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1순위는 항상 '직원들이 친절해서'였다"며 최우수 결과의 공을 직원들에게 넘겼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A) 등급 선정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복지관을 비롯한 시 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10개 기관과 손잡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남원시가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개의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청소년기관 2곳, 복지관 3곳, 작은도서관 4곳, 기타 평생교육기관 1곳으로, 이들 기관은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와 소외계층, 직업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체력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드론 교실도 마련됐다. 또한, 지리산과 남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 특화 교육도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효상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개별주택가격 내달 9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0,06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기에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서, 완주·전주 산업단지 소방안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지난 25일 완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완주·전주 산업단지 소방안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전주 산업단지 내 44개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불철 주요시책 및 화재예방 안내 ▲화재 사례 전파 및 소방안전관리 당부 사항 전달 ▲위험물 예방규정 지침 제정에 따른 작성법 안내 ▲2025년 협의회 운영방안 토의 ▲회원사 간 주요 화재예방활동 정보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침서 작성법을 안내함으로써 현장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아이 첫돌 축하해요” 장수읍 지사협, 축하금 전달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김점옥)는 지난 25일 관내 첫돌을 맞이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하고 선물과 축하금을 전달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첫 돌 축하사업’은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첫돌을 맞은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선물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23가구를 방문 및 초청하여 축하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차주영 읍장은 “첫돌을 맞이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신평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사랑앓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

신평면 새마을지도자(회장 김주현), 부녀회(회장 윤성순)가 지난 24일과 25일 신평문화회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사랑앓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과 사랑을 담아 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포장하여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등 100가구에 전달했다.

김주현 회장은 “고추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님,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성순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충의 신평면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을 보태주시는 신평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호원대 씨름부, 전국 씨름대회 동메달 획득

이준혁 선수 대학교부 개인전 용장급에서 값진 메달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씨름부가 제39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교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호원대 씨름부는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남도 통영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해 지난 25일 대학교부 개인전 용장급(-90kg)에서 이준혁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준혁(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선수는 16강 동아대 손○호, 8강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39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교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호원대학교>

울산대 장○대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호원대학교 씨름부를 이끌고 있는 한승민 감독은 “이준혁 선수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성과를 이루었다. 첫 동메달이지만, 이 성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선수라고 확신한다”며 이준혁 선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시정발전 기여한 3명 명예시민증 수여

김철수 前 남원경찰서장·김남주 前 7733 부대장·윤성호 前 7733부대 3대대장

남원시는 26일,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김철수 전 남원경찰서장, 김남주 前 7733 부대장, 윤성호 前 7733부대 3대대장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증은 2005년 제정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명이 선정되어 우리시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를 보면 김

철수 前 남원경찰서장은 제94회 춘향제 및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남원경찰수련원 유치에 기여했으며, 김남주 前 육군 7733부대장은 부대 내 북무장병들의 남원시 전입을 추진해 누리시민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윤성호 前 육군 7733부대장은 관내 민·관·군·경·소방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세명 모두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김철수 전 남원경찰서장, 김남주 前 7733 부대장, 윤성호 前 7733부대 3대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사진=남원시>

국립전주박물관, ‘꽃다발 꽃차 만들기’ 행사

국립전주박물관에 특별한 문화체험이 찾아온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4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꽃다발 꽃차 만들기’를 준비했다.

‘꽃다발 꽃차 만들기’는 봄 무료체험행사로 오는 4월 5일 오후 1시와 오후 4시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꽃다발 꽃차 만들기’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꽃차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봄꽃을 사용해 꽃차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음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행사이다.

이번 국립전주박물관은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코로 느끼고, 우려진 차 맛을 입으로 즐기는 오감이 만족하는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4월 2일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 친환경 교실 만들기 ‘NH교실숲’ 제 13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25일 군산구암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3호를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천연 농협 군산지부장, 김선에 군산구암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교실숲 제13호』 현판식을 갖고 7학년 134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II급식물인 파초일엽 149여 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공기정화 식물을 교실에 두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반려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손수 식재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하는 친환경 ESG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텐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되었으며 환경교육 키트를 통해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트리플레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149그루의 공기정화식물만 1-for-1사업을 통해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149그루를 양육하여 친환경 숲가꾸기 사업을 이어간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청소년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ESG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나순희 명예대산면장 사랑의 성금 50만 원 기탁

고창군 대산면 나순희 명예면장이 지난 25일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나순희 명예면장은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전북특별자치도지부 회장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나순희 명예면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봉어빵아저씨 김남수 씨 산불 피해에 성금 기탁

익산의 봉어빵아저씨 김남수씨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익산시는 김남수씨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수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가족과 일터를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부문화가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심을 달이고 담다
정정원
햇살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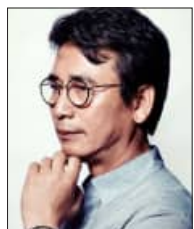
**진심 하나로
맛의 레벨업**

11년 이상 된 **시간장**을 넣고 숙성해
더 깊은 맛의 **양조간장**으로 꼭 바꿔보세요!

간장 부문 브랜드
고객만족도(BCSI) 1위

[시원한국식품산업, 우수소비자평가(2023)]

〈一事一言〉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2)

유시민
작가

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은 각자 다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100만 명의 유족연금 수급자와 소수의 장애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건 아니다. 급여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6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수급자의 12.4퍼센트만 100만 원 넘게 받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대체율도 따라서 낮은 탓이다. 소득의 겨우 9퍼센트를 내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해하지 마시라. 소득대체율이 40퍼센트라고 해서 누구나 생애 평균소득의 40퍼센트를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자 평균소득을 버는 사람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했을 때 그 기간 평균소득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2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40년이 되지 않았고 가입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나고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는 상황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3퍼센트 포인트 올렸

다고 해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지금도 앞으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충분하진 않아도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
4. 기금 적립금 고갈은 불가피한가?
그렇다. 이번에 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적립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자신이 내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 스스로 부담한다. 2007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비는 약 1.8이었다. '평균적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보다 1.8배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평균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만큼 보험료를 내고 전체 가입자 평균 수명만큼 사는 '가상의 가입자'를 가리킨다. 2019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은 2041년 약 1778조 원으로 정점에 오르고 2042년부터 감소해 2057년 완전 소진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평균적 가입자'의 수익비가 조금 하락해 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10년 정도 늦추어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작년에 공개했어야 할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효과는 날 것으로 본다. 출생률·고용률·경제성장률·임금인상률·기금운용수익률 등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10년 정도 고갈 시점이 늦추어진다는 말이다.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최상목더러 거부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다. 하지만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여준 것은 분명하다. 50점보다는 60점이 낫지 않은가? 100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60점짜리를 버리고 50점짜리를 고수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5.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합리적인가?
소득재분배는 좋은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소위 'A값'을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품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 최고등급 가입자의 수익률도 어떤 민간보험회사의 연금 상품 수익률보다 높다는 점은 잊지 말자. 그렇지 않다면 왜 서울 강남에 사는 가정주부들이 임의 가입해 최대한 높

은 보험료를 내겠는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다. 국가의 과제를 왜 국민 일부만 가입한 국민연금으로 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 40퍼센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산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국민들끼리만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재정 안정화 개혁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부조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전주스마트그린산단, 제조업 혁신 기대한다

전북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요소가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공식 출범한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총 9백여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스마트물류 플랫폼 및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이를 통해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스마트 제조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전문기술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역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눈

에 띈다. '무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노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산단의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업 유치가 이뤄지고, 다양한 신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기반 및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개편이 아닌,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뒷받침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재열전



남원 관왕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주거건축, 가옥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남원시 왕정동 51번지

▲오늘의시

마늘밭 / 류근

마늘밭에 머무는
봄날 햇볕은
병들어 돌아온 딸을
그저 바라보는
친정 아버지 눈길 같다

한길가에
자투리 자투리마다
의자를 내어놓고
목덜미 흐르는 난민들

고양이 같고
가기도 전에 지쳐버린
시외버스 같다

흙바람 노랑게 지나가는

봄날 마늘밭은
나자 마자 늘어버린

모옥을 포옥 뒤집어쓴 채
약방 앞에 좌판을 벌인
어머니 같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

석에 의해 불려져 유명세를 탔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영암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종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장수지국 010-5312-7293	연수지시 010-8640-6855 김제지국 010-4572-6112	
팔백지시 010-3015-4791 정읍지국 010-2800-2934		
송천지시-010-5242-3694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남원 춘향제 '원푸드존' 운영 관광객 사로잡다 백향과 신제품 등 농특산품 매력 발산



〈사진=남원시〉

시제품 시식·백향과 요리 클래스·전시·게임 체험·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제95회 춘향제와 함께하는 농특산품 축제에서 '원푸드존'을 마련하여 남원 원푸드와 지역 특화 품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원푸드존은 백향과 가공식품 판매장과 개발 시제품 시식 행사, 백향과 요리 쿠킹클래스, 전시 및 게임 체험, 포토존

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시제품 상품과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백향과맛 애플사이다비니거, 백향과소스 닭가슴살, 백향과 샌드파이, 백향과맛 샌드빵

등 다양한 가공시제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원푸드존에서는 매일 시간별로 운영되는 백향과 쿠킹클래스와 남원 백향과를 형상화한 '백향이' 캐릭터 상품 전시 및 포토부스, '백향고(백향GO)' 게임 체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전까지의 행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식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남원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푸드 육성' 사업은 남원만의 차별화된 미식 관광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치를 극대화하여 1차 생산 재배 농가부터 2차, 3차 산업으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2025년에는 특화 작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백향과 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해 전년도 1ha(10농가)에서 2.5ha(16농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가를 방문하여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물 생산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관내 식품 제조가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 사업(11개소, 680백만원)을 추진하여 백향과, 팥, 가루쌀과 같은 남원 지역의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한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가공 기술과 홍보·판매장 조성,

유통 판로 확대를 통하여 판매 및 소비 활성화와 지역 농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원푸드 가공 시제품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미식문화

공간 기획을 통해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식관광 거점도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남원의 최대 지역 축제인 춘향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남원 농특산물의 매력에

빠져 농가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 상생하고 전년보다 더욱더 새로운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원 원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